

BP, 아시아 겨냥 구조조정 집중

아세틸 · P-X · PTA에 집중투자 ... LAO/PAO · 식물 · 섬유는 매각

BP가 161억달러 상당의 석유화학사업(BP Petrochemicals)을 성장부문과 구조조정 및 분사부문으로 분류해 재편성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세틸(Acetyls), P-X(Para-Xylene) 그리고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사업은 성장사업으로 지정한 반면, Polyolefins, PS(Polystyrene) 그리고 AN(Acrylonitrile) 등을 포함한 O&D(Olefins 및 유도제품)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LAO/PAO 사업과 식물 및 섬유사업부는 매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BP의 양면전략은 중국수요증가와 아세틸, P-X, PTA에서의 비교우위, 유럽시장의 O&D 성장률 둔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BP는 2006년부터 석유화학에 대한 자본투자를 연간 10억달러에서 7억5000달러로 축소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아세틸, PTA, P-X 등 핵심제품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BP는 PTA와 P-X에서 각각 60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아세틸 사업은 초산(Acetic Acid) 200만톤 생산능력에 Acetic Anhydride, Acetone, Ethyl Acetate, Vinyl Acetate Monomer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자본투자 감축이 중국 Sinopec과의 에틸렌 및 유도제품에 대한 27억달러의 합작투자 프로젝트와 텍사스 Chocolate Bayou의 에틸렌 확장계획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다른 에틸렌 크래커 증설 계획은 없다.

BP의 에틸렌 생산량은 서유럽 최대이자 미국에서는 8번째이고 AN은 세계최대, PP(Polypropylene)는 세계2위 생산기업이다. 또 Solvay와의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합작투자로 세계3위의 HDPE 생산기업이 되었다. BP는 Solvay가 11월부터 적용되는 풋·콜 옵션을 행사한다면 Solvay의 지분을 매입할 방침이다.

한편, BP는 총자본의 60%를 점하고 있는 O&D의 사업실적 향상을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중이며 LAO/PAO와 식물 및 섬유 사업은 매각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LAO/PAO 사업부는 생산능력이 105만톤으로 벨기에 Feluy, 앨라배마 Joffre, 텍사스 Pasadena 플랜트 등에 분산돼 있고 55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 및 섬유사업부는 가구 및 침구용 PP부직포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19개 공장에서 4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2001년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철회한 바 있다.

BP Petrochemicals은 2003년 4/4분기 매출이 39% 증가한 43억달러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75% 감소한 35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03년에는 유로화 강세, 수요둔화, 그리고 SARS 발병 등의 요인들이 작용해 고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BP는 2004년 1/4분기 석유화학사업 마진이 2003년 4/4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5>